

# 정치공작에 쓰인 페북... 조사 착수·집단 소송 후폭풍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영국에 본사를 둔 데이터 분석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회원 정보를 유출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선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며 페이스북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영국, 유럽 연합(EU) 등 각국이 CA와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가 착수하는가 하면 영국 의회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에게 출석 요청서를 보냈다.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거액의 벌금 부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으로 페이스북 가입자들의 대규모 탈퇴 조짐도 감지돼 페이스북이 사상 최대의 정치적, 법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이 CA에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허

용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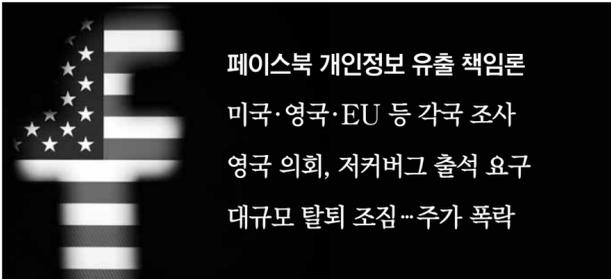
FTC는 페이스북이 이용자 5000만명의 정보를 CA에 넘길 때 사전 동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2012년 도입된 관련 규정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른 다른 업체와 공유할 때 사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거액의 벌금 부과가 예상된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은 2012년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해 2250만 달러의 벌금을 낸 적이 있다.

EU도 자체적인 조사를 추진 중이어서 페이스북은 동시다발적인 수사에 직면하게 됐다.

베라 요우로바 EU 법무 담당 집행위원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책임론**  
미국·영국·EU 등 각국 조사  
영국 의회, 저커버그 출석 요구  
대규모 탈퇴 조짐...주가 폭락

은 이번 사건을 '끔찍한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금주 미국 방문 동안 페이스북의 해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그는 EU 개인정보 보호 당국에 페이스북 스캔들에 대해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고 요우로바 집행위원 사무실 측이 확인했다.

캐나다 국민의 사생활정보 보호 감독 기관인 캐나다 프라이버시위원회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파문과 관련, 독자적

인 조사에 나섰다.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의회선 저커버그의 청문회 출석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진상 파악을 위해 저커버그 CEO의 직접 증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CA 본사 소재지인 영국의 하원 미디어 위원회는 저커버그에게 의회에 출석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영국에 이어 미국 의회에서도 저커버그 소환이 거론된다.

미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로 "위험한 신호"로 규정하고, 저커버그 CEO가 보안정책에 있어 솔선수범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는다면 의회가 개입해야 한다고 저커버그의 의회 출석을 요구했다.

페이스북은 저커버그 CEO의 의회 출석 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고 현재 내부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전방

위 압박으로 20일 뉴욕 증시에선 페이스북의 주가가 이틀째 큰 폭으로 하락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칼럼에서 페이스북이 CA의 정보유출을 발견하고도 즉각적인 법적 대응 없이 정보 파기만을 지시했다며 이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한 이유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 주주들도 집단 소송에 나섰다. 페이스북 주주들은 지난 20일 미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파문 이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냈다.

이번 집단소송에서는 원고로 2017년 2월 3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파문이 불거진 직후인 이달 19일까지 페이스북 주식을 매입한 주주들을 대변한다. /연합뉴스

## 트럼프, 4연임 푸틴에 축하전화... 북한 비핵화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재선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3월18일 재선을 축하했고,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두 정상은 국가안보 우선 사항과 도전과제들에 대한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 양국이 전략적 안정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 공유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와의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의향을 밝히고 "우리는 우크라이나, 시리아,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며 "아마도 푸틴 대통령을



트럼프(왼쪽) 미 대통령과 푸틴 러 대통령

너무 머지않은 장래에 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만나면 통째로 수 없는 군비 경쟁에 대해 논의할 것 같으며 "우리는 누구도 우리가 보유한 것에 가까운 것(무기)을 갖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 이란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그리고 군비 경쟁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양국 공통의 이해에 대해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것이 오늘 통화의 요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샌더스 대변인은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우리 군의 재건, 에너지 수출 등 러시아에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많은 것들에 대해 계속 강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최근 러시아가 지난 미 대선에 개입하고 사이버 공격 등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러시아 기만 5곳과 개인 19명을 제재한 바 있다. /연합뉴스



부활절 앞둔 바티칸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 바티칸의 성 피터광장에서 몰려든 신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보고 있다. 교황은 오는 29일 천주교의 가장 중요한 축일인 부활절을 앞두고 로마 시내의 교도소를 방문, 재소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의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시진핑, 친위세력 전진배치 시작

### 쓰촨성 서기 평칭화 선임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폐막과 함께 이어진 후속 인사에서 시진핑(習近平) 친위세력의 전진배치가 시작됐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21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평칭화(彭清华·61) 광시(廣西)장족자치구 서기를 쓰촨(四川)성 서기로 선임했다고 전했다.

평 서기의 이동은 왕동밍(王東明) 쓰촨

성 서기가 이번 양회에서 전인대 부위원장으로 옮긴 데 따른 조치다. 서부 내륙에서 가장 크고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교차점으로 중시되는 지역으로 이동은 사실상 승진 인사다. 특히 평 서기가 현 최고지도부와 깊은 인연을 갖고 일찌감치 시 주석에게 충성을 서약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평 서기는 2014년 다른 성 서기들과 함께 '시진핑 핵심'을 확립해야 한다는 연명 제안을 올렸다.

2016년 10월 18기 6중전회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이 확정되기 9개월 전 "시진핑 핵심을 굳건히 옹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평칭화의 현재 광시자치구 서기 자리에는 루신서(鹿心社) 장시(江西)성 서기가 수평 이동했다.

루신서는 저장성 출신의 시 주석 인맥으로 2016년 18기 6중전회가 끝난 뒤 당 위원회를 소집해 장시성이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과 한몫이 되어야 한다며 6중전회 결과를 학습하라고 요구하는 등 충성파로 분류된다. 시 주석이 저장(浙江)성 서기로 재임할 당시의 관료 인맥군 '즈장신권(之江新軍)'에 속하는 류치(劉奇) 장시(江西)성 성장 겸 당 부서기는 이번 인사로 승진됐다. /연합뉴스

## 중국, 노골적 남중국해 군사 기지화

### 필리핀에 초계비행때마다 경고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에 잇따라 인공섬을 만든 중국이 필리핀 항공기가 주변을 초계비행할 때마다 자기 영공이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전체 해역의 90%가 자기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이 안에 있는 암초들을 매립, 군사 기지화한 중국의 야욕

이 점차 노골화하는 형국이다.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항공기가 중국 인공구조물 위를 초계비행할 때마다 중국으로부터 경고를 받는다"고 말했다고 현지 일간 인콰이어가 21일 보도했다.

로렌자나 장관은 "필리핀 항공기가 초계비행할 때마다 중국은 '중국 영공에 들

어오고 있다'고 경고한다"면서 "그러면 우리는 '아니다, 필리핀 영공을 통과하고 있다'고 응수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필리핀은 서필리핀해(스프레틀리 제도)를 포함한 남중국해 동쪽 해역 등 영해에서 정기적으로 초계비행과 해양 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인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만 남중국해 인공섬에 활주로를 비롯해 약 29만㎡ 규모의 영구 시설을 건설했다. /연합뉴스

### 영광주택매매(급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최근리모델링 전체 완료)  
텃밭, 정원, 창고, 차량진입가능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 시세가 1억 2천 ◆  
매매가 9천 4백

주인직매 010-6670-9800

### 신축 원룸 매매 (원룸전문)

◎ 월곡동 신축건물 (최고급)  
(월곡시장 2분, 고려인마을 1분)

총 4층건물  
(원룸 12개, 투룸2개)

월수익 550만 예상

◆ 매가 : 8억 5천만 ◆

- ① 월곡동 산정공원 바로앞(코너) 주인집거주 ▶매가 9억5천만
- ② 전대정문 2분 (원,투룸 18개) 월수익 800만 ▶매가 13억 5천만
- ③ 전대정문 2분 (원,투룸 18개) 월수익 800만 ▶매가 13억5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 법률 경매 (주)대신크매

- 1) 화순 도곡면 (무인텔) 토 3,289평 건 3,278평 객실 32개(월수익 5,000만 이상) ▶감정가 39억 → 최저가3억8천
- 2) 광안구 신창동 (월룸빌딩) 토 55평, 건 120평 광주부건대 부 ▶감정가 3억8천 → 최저가2억6천7백
- 3) 수원지구 (1층상가) 토 101평, 건 65평 국민은행 사거리 위치 ▶감정가 12억7천 → 7억
- 4) 서구 광천동 (주택) 토 92평 건 54평 감정가 1억8천8백 → 최저가 1억8천8백
- 5) 남구 노대동(상가건물)어린이집 감정 4억8천7백→최저 3억4천4백
- 6) 광안구 수원동 (1층 상가) 감정가 9억6천→ 최저가 6억7천
- 7) 남구 진월동 (5층 상가원룸) 감정가 7억5천 → 최저가 7억5천
- 8) 광안구 신창동 (원룸빌딩) 감정가 3억8천 → 최저가 3억8천
- 9) 남구 진월동 (5층 상가빌딩) 감정가 18억 → 최저가 18억
- 10) 동구 충정로 (3층 상가빌딩) 감정가 4억6천 → 최저가 4억6천
- 11) 광안구 수원지구 (주채빌딩 1층) 감정가 12억7천 → 최저가 7억천

### A.P.T · 주택 · 공장 · 기타 등

- ① 서구 치평동 금호타운 아파트 (3평) 감정 2억2천4백 → 최저 1억5천6백
- ② 서구 내방동 내방주공아파트(24평) 감정 1억4천3백 → 최저 1억7천
- ③ 남구 주월동 (무등파크) 25평 감정 1억4천 → 최저 9천8백만
- ④ 서구 치평동 금호대우아파트(2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
- ⑤ 광안구 소촌동 스위트밸리 (3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
- ⑥ 광안구 용동(공장) 토 500평 건 445평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6억7천
- ⑦ 함평군 신광면 (공장) 감정 26억4천 → 최저 7억5천7백
- ⑧ 광안구 삼계동 (공장) 감정가 6억 → 최저가 4억2천
- ⑨ 목포시 신정동 (노유자시설) 감정 16억8천2백 → 최저 9억4천
- ⑩ 담양군 금성면 (임야 5,730평) 감정 9천 → 최저5천

010-6670-9800 062)382-5500

### 경매 교육 (3월초 개강)

경매로 이제부터 돈많이 버세요~

- ① 무료반 실시 - 오전오후
- ② 기초반 - 경매기초 + 기본실전(무료교육)
- ③ 실전투자반 - 기초+실전 - 매매까지

① 기초반 → 경매기초 + 기본실전(무료교육)  
② 실전투자반 → 기초+실전 - 매매까지

### 경매 가족을 모집합니다!

- 1) 경매 배우면서 근무하실분
- 2) 경매 컨설팅하면서 수익내실분

평생회원 → 책상,컴퓨터,교육(무료제공)

062)382-5500  
010-6670-9800